

환경교육·환경커뮤니케이션 관점을 적용한 미디어 콘텐츠 분석 II

호규현, 권주영, 이해선, 조혜진, 지혜성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환경커뮤니케이션 (ESC)]

1. 서론

풀씨연구회 4기 선정으로 세 번째 활동을 시작한 ESC의 2024년 목적은 ‘융합의 실천’이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융합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들.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환경생태학자 최재천이 약 20년 전에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Consilience)>을 번역하면서 유행한 융합적 접근은 특히 환경을 다룰 때 유용하다. 환경과 관련된 담론은 특정 학술 공동체의 지식(knowledge)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과 자연의 수많은 생명과 관계되는 지혜(wisdom)의 수준에 맞닿기 때문이다. 본 연구모임은 풀씨연구회 3기에서 환경커뮤니케이션 연구자와 환경교육 연구자로 팀을 구성하고 콘텐츠를 분석하며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여 지식을 쌓았다. 2024년에는 누적된 지식을 지혜로 확장하기 위해 출판용 원고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이나 <영화, 환경을 이야기하다> 등의 기존 도서들은 의미 있는 기초자료이지만 몇 가지 한계로 인해 2024년 현재의 교육·커뮤니케이션 현장에 오롯이 적용하기 어렵다. 먼저 미디어 콘텐츠의 역할이 환경문제의 배경지식을 불러오거나 환경문제를 연상하는 도구로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 <옥자>의 미란도 그룹으로 그린위싱을 상기시키고, 영화 <리틀 포레스트(일본판)>는 유기농 먹거리 혹은 먹거리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배경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2023년 3월 풀씨연구회 3기 제안서에 작성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이두곤, 2006)’, 즉 환경교육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한계를 지닌다.

환경에 관한 미디어 콘텐츠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의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은 환경교육 분야의 문헌(구수정·김영신·박윤복, 2000)에서도 두드러지는데, 해당 문헌에서 환경 뉴스는 환경문제 관련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소재로 언급된다. 하지만 환경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해선, 2024; Pezzullo & Cox, 2018), 미디어 콘텐츠에서 자연이나 자연환경을 재현하는 양상은 인간-자연 간의 관계 인식이나 자연을 향한 인간의 평가적 가치에 차별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영화 <옥자>에서 자연을 상징하는 옥자와 미란도 그룹 간의 관계는 자연환경을 통제 혹은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지배적 가치를 반영한다 볼 수 있고, 영화 <리틀 포레스트(일본판)>에서 이치코와 코모리의 관계는 인간의 물리적 의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연을 향한 실용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다.

환경문제의 배경지식을 불러오거나 환경문제를 연상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접근 방법은 미디어 콘텐츠의 교육 활용 범위를 ‘도입’ 부분이나 ‘환경정보활용 능력’에 제한하는 한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관한 미디어 콘텐츠는 자연을 향한 9가지 유형의 평가적 가치뿐 아니라 환경 감수성, 시스템사고, 협력과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환경 정보 활용 능력이라는 6개의 환경역량 모두와 연계될 수 있음에도, 환경 관련 미디어 콘텐츠의 역할을 배경지식·정보 전달로 제한하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모임은 2023년 풀씨연구회 3기로 활동하며 분석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완·확장한 출판용 원고를 작성하고자 했다. 풀씨연구회 3기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환경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20개를 발굴하였고, 발굴 사례 가운데 6개는 환경커뮤니케이션·환경교육 관점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올해에는 기존 연구 결과 가운데 4개의 분석 결과와 6개의 사례를 각각 선별하고, 5개의 분석 결과와 22개의 사례를 새롭게 추가하여 출판용 원고를 완성하고자 했다.

<표 1> 미디어 콘텐츠 분석 사례

플씨연구회 3기 (2023년)		플씨연구회 4기 (2024년)	
주제	분석 대상/추천 콘텐츠	주제	분석 대상/추천 콘텐츠
자연 환경	서울시 발간 전자책 <사연 있는 나무이야기>	영화	<리틀 포레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환경스페셜 <다시 살아나는 숲>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야생의 새끼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 영화 <리틀 포레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 <옥자> 영화 <인생 후르츠> 영화 <킹 오브 씬머> 영화 <김씨 표류기>
생활 환경	KBS <시사직격> 中 '불타는 미래, 멸종에 저항하다!'	자연 환경	서울시 발간 전자책 <사연 있는 나무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미니멀리즘: 오늘도 비우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야생의 새끼들> 박물관에 만든 놀이공간 <미래 고고학> 대구MBC 다큐멘터리 <도시 숲길을 걷다> SBS스페셜 <The랩쥬>
지구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산호초를 따라서>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EBS 다큐프라임 <여섯 번째 대멸종-재앙의 서막> tvN <벌거벗은 세계사> 中 '위기의 지구, 인류 멸망의 시그널' YTN <인류는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더 무비>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애니메이션 <로렉스> 애니메이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영화	영화 <봉명주공>	그래픽 노블	<오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 <인생 후르츠> 영화 <이웃집 토토로> 영화 <킹 오브 씬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래픽노블 <집을 찾는 코끼리> 그래픽노블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픽노블 <바닷속 유니콘 마을> 그래픽노블 <공포의 먼지 폭풍>
애니메이션	영화 <월-E>	생활 환경	KBS <시사직격> 中 '불타는 미래, 멸종에 저항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 <꿀벌 대소동>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시즌12 4회 '나무 지킴이 리사'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SBS스페셜 <미세먼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미니멀리즘: 오늘도 비우는 사람들>
광고	Corona Plastic Fishing Tournament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포레스트 신시도	지구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산호초를 따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6차 COP26 투발루 외무 장관의 수중 연설 <The First Digital Nation> 해양수산부 <치어럽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S창사특집 <고래와 나> 해양환경공단·해양수산부 제공 <해양환경정보포털> 도서 <ㅈㅈㅈ> & 영화 <코랄러브>
		예능 프로그램	<지구 위 블랙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B공개 다큐 지구별 별책부록> SBS <공생의 법칙> KBS <오늘부터 무해하게> SBS <옆집 남편들: 녹색 아버지회>
		소셜 미디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포레스트 신시도>, 유튜브 채널 <세미의 절기>, <나의 쓰레기 아저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월 추가 예정

주. 2024년 플씨연구회 4기 활동으로 새롭게 발굴한 콘텐츠 혹은 주제들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출판용 원고는 이론적 배경(환경교육·환경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 상징적 접촉에 따른 평가적 가치 함양,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환경역량), 주제별 주요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과 교육학의 학제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 관련 콘텐츠를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출판용 원고 작성과 별개로, 풀씨연구회 4기 활동을 통해 다른 환경 연구자 및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기획하여 연구모임의 네트워크를 확장해보고자 했다. 연구모임 ESC는 2023년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담당자를 초청한 워크숍에서 영화 <산호초를 따라서>의 해설 프로그램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제5회 환경학술포럼에서 풀씨 10기 ‘강정친구들’ 최혜영 연구자의 강정마을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발표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연구모임 전원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연산호 군락 실태를 청취하고 협업 방안을 구체화해보고자 했다(예: 영화 <산호초를 따라서> 상영 후 환경커뮤니케이션·환경교육 관점의 분석과 강정마을 연산호 군락 실태를 논의하는 세미나 진행).

2. 본론

1) 활동내용

<표 2> 팀 ESC 풀씨 연구회 4기 활동 요약

회차	일시	주요내용
1차 모임	2024.0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킥오프 미팅 • 원고 작성을 위한 계획 공유 및 기초 계획 수립
2차 모임	2024.0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서 출판 워크숍 • 전문가 의견 검토 및 피드백
3차 모임	2024.06.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원고에 대한 피드백 및 방향성 검토 • 7월 제주도 워크숍 계획
4차 모임	2024.07.2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 워크숍 • 풀씨 10기 ‘강정친구들’ 최혜영 연구자와 세미나 진행 • 전문가 검토(1차)를 통한 2차 원고 작성 계획 수립
5차 모임	2024.08.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원고에 대한 피드백 및 방향성 검토 • 기존의 방향과 다른 원고 작성 방안 논의
6차 모임	2024.0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원고 수정본 검토 및 원고 작성 방향성 논의 • 3차 원고 작성에 대한 논의
7차 모임	2024.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원고 작성에 대한 피드백 및 최종회의 • 출판사 선정, 외부 자문 검토
8차 모임	2024.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원고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활동 종료 후	20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검토(2차) 및 수정/피드백, 출판사 접촉 예정

(1) 1차 ~ 3차 모임 : 1차 원고 작성 및 환경 관련 저서 출판 워크숍 진행

작년에 취합됐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풀씨연구회 3기 모임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고 공유하며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것을 하나의 글로써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연구회 구성원들은 저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초반 논의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다. 예를 들어, 글을 구성원들이 각자 작성해서 구성할 것인지, 주요 독자층은 누구일지, 글의 구성은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좀처럼 막연함은 해소되지 않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관련 저서 출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출판 워크숍에는 도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을 기획하고 담당하였던 강희영 공동

대표(여성환경연대)와 도서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의 저자 중 한 명인 조성화 관장(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초청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저서 출판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있었고, 여러 명의 저자가 하나의 책을 작성할 때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연구회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저서의 방향성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조성화 관장은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을 저술할 당시 팀원들 간에 각자의 글을 작성해온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공유해주셨는데, 팀원들 간의 글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구성원 개개인 간의 생각과 의견을 어떻게 하면 잘 아우르는 글이 작성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얻을 수 있었다.



도서 출판 과정 및 방법

조 성 화

1. 기본 정보

- 도서명 :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 저자 : 5인(권혜선, 김진국, 김희경, 안재정, 조성화)
- 기획 : 환경과교육연구소
- 출간일 : 2018년 10월
- 수상 : 2020 우수환경도서
- 판매부수 : 약 1만권(8쇄)

2. 기획 및 진행

- 연구소 연구원 정기 미팅(월 1회) 중, 일반 시민들의 환경 관련 인식을 높일 필요성 제기
-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정기적으로 쓰는 것으로 결정
- 시민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매개체로 '영화' 선정
- 5인이 2달에 1편의 글을 쓰는 방식(1달에 2~3편의 글 완성)으로 쓰기로 함

[그림 1] 2차 모임 활동사진 및 관련 자료

워크숍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원고를 작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환경커뮤니케이션과 환경교육의 융합적 글쓰기를 의도하고자 한 콘텐츠를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와 환경교육 연구자가 짝을 지어 작성해보기로 하였다.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보더라도 평가적 가치와 환경역량이라는 다른 프레임으로 분석될 때 도출될 수 있는 상승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작성된 원고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피드백을 서면으로 남기고, 각자 이를 읽어보며 1차 원고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됐지만, 실제로 글을 작성하고 결과물을 보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데 팀원들이 공감했고 다른 환경 연구자/전문가의 시각에서 원고에 대한 검토와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4차 모임에서 외부검토 및 협동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림 2] 3차 모임 활동사진

(2) 4차 ~ 6차 모임 : 2차 원고 작성 및 협동 워크숍

4차 모임은 팀 ESC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던, 다른 분야의 연구자/전문가와 융합을 도모하고자 제주도에서 1박 2일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협동 워크숍에는 풀씨 10기 '강정친구들'의 최혜영 연구자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를 초청하였다. 최혜영 연구자는 제주도 강정마을 연산호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며, 전시 <국

가를 막아선 사진들>, 다큐멘터리 <코랄러브> 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활동가이자 전문가이며 조수진 기자는 제주에서 오랜 기간 기자로 활동하며 제주의 자연환경과 주요 사회 현안을 수년간 취재해온 전문가다.

최혜영 연구자는 연산호라는 비인간 존재가 갖는 의미와 능동적 실천에 대해서 발제하였는데, 팀 내부에서는 갖기 어려웠던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을 배우고 콘텐츠에 등장하는 비인간 존재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됐다. 또한, 팀 ESC에서 최혜영 연구자의 발제에 대해 환경커뮤니케이션 관점과 환경교육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대해 다채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수진 기자는 팀 ESC에서 작성한 원고를 검토하며, 독자층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성과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할 때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을 제안해주었으며 최혜영 연구자도 독자 입장에서 구체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협동 워크숍 이후 이들의 시간 동안 2차 원고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글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는데, 1차 원고에서는 하나의 콘텐츠를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와 환경교육 연구자가 나눠서 작성했다면 2차 원고를 작성할 때는 평가적 가치와 환경역량에 대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한 다음 하나의 콘텐츠를 한 명의 연구자가 환경 커뮤니케이션 관점과 환경교육 관점을 모두 작성해보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본 뒤, 1차 원고와 비교하여 평가했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원고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는 협동 워크숍에서 다른 연구자/전문가와 의견을 나눴던 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240725 풀씨연구회 ESC 여름 세미나 <환경 관련 미디어 콘텐츠의 융합적 접근 방향 모색>
주제 : 강정마을 연산호 모니터링 현황과 연산호를 다룬 사진·영화의 역할

강정 연산호 기록과 미학적·예술적 실천 분석
- 연산호와 관련된 사진과 영화 사례 연구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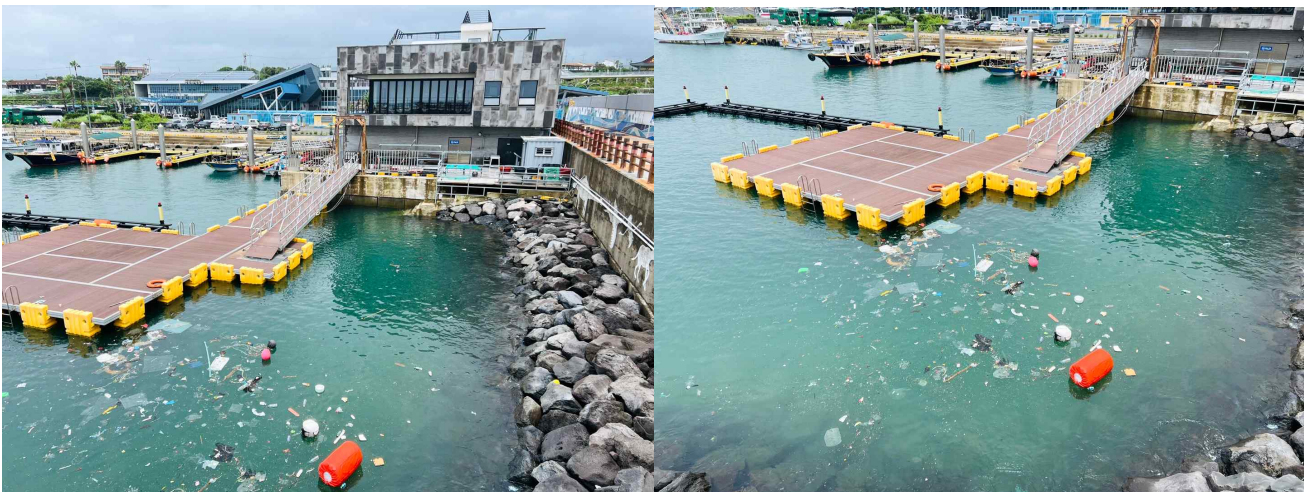
최혜영 (제주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 목 차 -
1. 들어가며
 2. 강정마을 연산호 모니터링 현황
 3. 연산호를 다룬 영화·사진의 역할
 - 3-1. 전시 <국가를 막아선 사진들>
 - 3-2. 다큐멘터리 <코랄 러브>
 4. 나가며

1. 들어가며

팬데믹 이후 사회적 변화가 요청되고 기후위기 앞에 녹색전환에 대한 논쟁이 진행 되고 있지만, 체제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비인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절실하게

[그림 3] 합동 워크숍 활동사진 및 관련 자료



[그림 4] 합동 워크숍 중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산책로 주변에서 확인된 쓰레기들

(3) 5차 ~ 8차 모임 : 최종 원고 작성 및 수정

협동 워크숍에서 결정했던 방향으로 2차 원고를 작성해보고, 각자 서면으로 피드백을 남긴 뒤 만나서 회람하였다. 1차 원고를 작성할 당시에 비해 흐름이 좀 더 깔끔해지고 글이 읽기 쉽게 된 것은 맞으나 초기에 팀에서 의도하고자 하였던 융합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였다. 결론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와 환경교육 연구자가 서로 관점을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우면서 원고가 작성되는 과정이었기 때문

에 이 또한 융합의 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2차 원고를 작성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나머지 전체 원고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글을 작성해 나갔다.

3차 원고를 작성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나눌 무렵 대부분의 글은 완성됐다. 특히, 환경커뮤니케이션 관점의 평가적 가치와 환경교육 관점의 환경역량이 대중에게 쉽게 읽히고 저자들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 작성된 최종본은 외부 검토를 통해 다시 한번 자문받을 예정이며, 접촉할 출판사를 선정하기 위해 리스트를 만들었다.

2) 출판용 원고 사례1)

① 환경커뮤니케이션·환경교육 프레임워크

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하는 두 관점으로 켈러트의 평가적 가치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환경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두 프레임워크는 원고의 본문에서 제시 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독자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커뮤니케이션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두 프레임워크는 다소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독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환경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

‘환경’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산이나 숲, 강, 바다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강아지, 고양이, 복극과 같은 동물이나 꽃과 나무 같은 식물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숲이나 바다에서 동식물들이 서로 어울려 만들어낸 생태계,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반려동물이나 가족들도 환경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도로, 공원,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대기(大氣).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지구 주변을 감싸는 기체의 총칭)도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대기 속 오염물질인 미세먼지의 증가는 환경 문제이고, 지구의 기후(氣候, 오랜 기간의 평균적인 날씨 상태)가 인위적·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는 기후변화 역시 환경 문제입니다. 평소엔 ‘환경’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막상 내가 생각하는 환경이란 무엇일까, 우리 주변의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씩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환경’에 정말 다채로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환경의 다채로운 모습’, 특히 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난 환경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환경을 다룬 미디어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을 재현(再現, representation)한다는 것입니다. ‘재현’한다는 건 어떤 것을 다시 나타낸다는 뜻으로, 다채로운 환경의 모습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을 꼭 집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다스한 황금색의 햇빛 아래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가는 숲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주변 환경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대로 울창한 나무가 가득하지만 햇빛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어려울 정도로 어두컴컴한 숲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장면을 통해 마주했던 ‘숲’과 ‘나’의 관계를 어떤 양상으로 이해하게 될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경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와 다채로운 모습들이 있어요. 앞에서 예로 들었던 숲을 묘사한 두 장면도 결국은 모두 ‘환경’의 모습인데, 환경을 다루는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 우리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선택한 결과에 따라 재현된 환경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디어 콘텐츠로 재현된 장면을 통해 환경 요소 혹은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지까지 배워게 돼요.

환경교육 프레임워크

우주인이 되어 지구 밖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지구 곳곳에는 풍부한 문화와 발전된 과학 기술로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 교통체증, 실업, 고령화, 주택문제, 공해, 물 부족,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의면하기 어렵지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는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실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와, 머리 아파!”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 하지요.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환경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환경교육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면서 이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어요. 이후 환경교육은 환경 지식을 강조한 시대, 자연 안에서 체험을 강조한 시대를 거쳐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환경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시대를 향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환경교육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교육은 환경과 관련한 문제 현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도록 하고, 개인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는 여러 가치와 마음을 함양하여 주는 중요한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환경역량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환경 감수성’은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생명의 고통 등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거나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음이 높고 개구리 소리가 들리면 봄이 왔음을 알고, 울긋불긋 물든 금강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숲속 고라니의 겨울나기가 흥진 없을지 걱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동식물의 입장과 상황을 잘 이해하며 느끼는 것도 포함됩니다. 환경감수성은 일상에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심을 갖는 태도로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환경커뮤니케이션·환경교육 프레임워크’ 관련 출판용 원고 사례

② 작품선정 사유/작품 소개

원고에서는 총 8개의 주제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분석하였으며, 작품을 선정하게 된 사유와 작품소개를 챗터마다 제시하였다. 작품 선정 사유에서는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콘텐츠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며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작품소개는 줄거리나 배경 등 핵심적인 내용, 콘텐츠 분석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작품을 보지 않았던 독자가 읽더라도 책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어려운 용어가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다.

1) 출판용 원고는 원고지 200매 기준 500매 이상 작성되었으나, 향후 출판 계획에 의해 보고서에는 일부만 제시하였음

[생활환경] 콘텐츠 선정 사유

생활환경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 행하는 필수적인 활동으로, 의식주 활동 외에도 직업 생활, 사회 생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려면 필연적으로 탄소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게 되지요.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해를 끼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고,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행동도 소용 없다는 무력감으로 인해 '기후우울'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기후변화로 인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약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불타는 미래, 멸종에 처하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구만 빨라지는 기후변화 속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보아야 할 콘텐츠입니다. 고수온으로 바다 생물이 폐사하고, 기후변화로 발생한 산불이 모든걸 태우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연대하고, 인류가 처한 위기에 함께 '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희망을 다시금 일깨워 줄테니까요.

[그림 6] '작품 선정 사유/작품 소개' 관련 출판용 원고 사례

③ 평가적 가치 및 환경역량 분석

주제에 따라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콘텐츠는 환경커뮤니케이션 관점인 평가적 가치와 환경교육 관점인 환경역량을 적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환경을 다룬 미디어 콘텐츠의 주요 장면을 평가적 가치 중심으로 먼저 분석하고, 평가적 가치 중심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환경역량과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장면 1 : 동해에서 공연하는 윤도현밴드
#부정주의 #철학과 공동체 역량



이런 장면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애타고, 두려운 존재로 느껴질 수 있다는 부정주의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할머니께서 인터뷰하는 장면은 평화로웠던 집의 모습에서, 성난 파도가 들이닥쳐 망가진 물건들, 물이 차인 바다, 부서진 도로의 장면이 연이어 제시됩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 감독은 해안가 주민들의 평화로웠던 삶이 해수면 상승으로 망가져버린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감독은 할머니께서 화면의 중앙에서 인터뷰하는 불안해하는 손을 뽀르르떨리고, 파도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며 장면을 마칩니다. 이를 통해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공간이 위협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열려하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윤도현의 허리경도 높이에 차있던 물은 노래가 끝날 무렵에는 목 끝까지 올라와있습니다. 마치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물에 잠기는 사람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해안가에 살지 않는다면 소중한 추억의 장소가 바다에 잠겨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동해를 비롯해 많은 국가와 지역은 실제로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나라가 바다에 잠길 위기에 놓였고, 방글라데시에서는 1,500만 명이 상이 해수면 상승으로 난민이 될 처지입니다. 인터뷰에 나왔던 할머니께서는 한 평생 바닷소리를 듣고 도래사장을 보며 살아오셨지만, 바다는 악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윤도현밴드의 독특한 공연은 목 끝까지 물이 차오르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희망찬 노래를 들려주며, 두려워도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림 7] '평가적 가치 및 환경역량 분석' 관련 출판용 원고 사례

④ 주제별 추천 콘텐츠

작품 분석 후 마지막 부분에서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 추천 작품을 3~4개 제시하였다. 이 추천 작품들은 본문에서 분석한 작품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지만, 작품 분석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평가적 가치 혹은 환경역량이 드러나는 것을 주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부정주의 혹은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면, 주제별 추천 콘텐츠에서는 부정주의 혹은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과 다른 관점이나 역량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콘텐츠 선정 과정에 접근성이나 수상 이력 등을 고려하였으며, 각 작품의 선정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했다.

작품소개 (부제: 우울해서 행동합니다)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음악 몇 곡 듣기. 컵라면 먹기. SNS 하기. 무심코 보면 20분, 생분종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하루에 최대 150종, 1년동안 무려 5만 5천여 종에 달하는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는 지금, 과학자들은 '6번째 대멸종'을 경고합니다.

인류도 멸종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타는 미래, 멸종에 처하다>는 세계 84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집단행동에 주목하며 시작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동참했습니다. NASA 소속 기후학자 퍼터 칼 머스는 "인간인 우리의 멸종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확실한 경고가 필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위한' 장례식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들을 규탄하기 위해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침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면2>
다리 잃은 여우/생태 범인



#인본주의 가치 #환경감수성, 환경 정보 활용 능력
이처럼 우리는 자연과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감정을 투영하거나, 애착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케이터가 여우에게 마음을 뒀던 것처럼, 개, 고양이와 같은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나 혹은 물개, 삼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같이 동물에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식물보다 많다는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그곳에 사는 동물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으로 그곳에 사는 동물의 권리를 가장 우선으로 주장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동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대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물의 권리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경상남도 양산시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이 경부고속철도 공사 중지 가져본 소송을 냈습니다. 물론, 도롱뇽이 직접 낸 건 아니고(아마 직접 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천성산 사할의 승려들과 환경단체 관련자들이 '도롱뇽의 친구들'

[그림 7] '평가적 가치 및 환경역량 분석' 관련 출판용 원고 사례

도서 <스스스> & 영화 <코랄리브>

<산호초를 따라서>의 산호초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서귀포 남부 연안의 연산호 군락지는 한국에 서식하는 산호 170여 종 가운데 13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 대규모 산호군락지로, 2004년에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에 서식하고 있던 산호들이 녹아 내리거나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제주 연안의 연산호 군락이 있는 자연유산 지역을 다시 확인하고 자연유산 지역 축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 <스스스>와 영화 <코랄리브>는 제주에 서식하고 있는 연산호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도서 <스스스>는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과 제주 인근 해역에서 만날 수 있는 산호 30종의 사진과 각각의 특징을 소개하며, 영화 <코랄리브>에서는 제주 산호를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비ئات속으로 들어간 다이버들을 만나볼 수 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본 뒤에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을 직접 방문해보면, 멀게만 느껴졌던 비ئات속 이야기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바람계곡의 나무시카 (1984)

미래 지구는 거대 산업문명이 붕괴한 뒤 황폐해진 대지가 됩니다. 나무시카는 '부해'라는 곰팡이 숲과 인간 세계 사이에 위치한 바람계곡의 공중입니다. 거대 곤충 오우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지닌 그녀는 부해의 숲에 위협을 느끼며 마을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대국 토르메키아의 비행선이 바람계곡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행선에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불태웠던 '거신병'이 들어 있습니다. 거신병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탄생한 존재인데, 그러한 거신병이 인류의 문명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토르메키아는 거신병을 부활시켜 지구상 모든 포자식물을 불태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람계곡을 침입한 토르메키아의 군사들은 마을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나무시카는 자연을 훼손하려는 인간들, 인간에 적대감을 품은 자연의 존재자로서 활약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를 염원합니다. 이 작품은 환경문제가 국제 정치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면서도, 현 세대에 이어 미래 세대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를 뜻하는 예코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녹아 있어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해줍니다.

[그림 8] '주제별 추천 콘텐츠' 관련 출판용 원고 사례

3. 결론

연구모임의 주요 결과와 함의는 크게 학술적, 실천적,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해볼 수 있다. 먼저 학술적 측면에서, 이번 활동은 환경커뮤니케이션 분야와 환경교육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이 서로의 이론적 배경을 공유하고 환경을 다룬 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분석해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번 활동을 통해 발굴한 미디어 콘텐츠는 환경커뮤니케이션·환경교육 분야의 젊은 연구자 중심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주요 자료임과 동시에, 상징적 접촉을 통한 평가적 가치와 환경역량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함께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해당 내용은 환경을 다룬 미디어 콘텐츠에 주목하는 후속 연구뿐 아니라, 환경커뮤니케이션 혹은 환경교육 분야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이번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환경커뮤니케이션·환경교육 분야 젊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네트워크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출판 워크숍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들어보았고 협동 워크숍으로 환경을 연구하는 다른 분야의 젊은 연구자와 공통의 주제를 논의해봄으로써 새로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확장은 출판용 원고 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모임 구성원들은 내적 연결망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외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풀씨연구회의 확장 측면에서 연구회 간의 협동워크숍 혹은 합동 세미나 등을 도모하기 위한 선례 혹은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이번 활동으로 발굴한 8개 주제의 38개 콘텐츠는 환경교육 혹은 환경 관련 정책에 사용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의 범위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환경부(2020)에서 발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은 환경교육에 적용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로 유튜브, 카드뉴스, 가상·증강현실 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모임의 주요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환경을 다룬 미디어 콘텐츠는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전자책, 그래픽노블, 예능 프로그램, 소셜미디어(유튜브 채널), 정부 부처 제공 포털사이트, 박물관에 조성된 놀이공간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환경을 다룬 미디어 콘텐츠는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미래형 디지털 환경학습 교재·교구 개발'의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제4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환경을 다룬 미디어 콘텐츠를 환경커뮤니케이션·환경교육 관점으로 각각 논의한 본 연구모임의 주요 결과는 해당 정책에서 다룬 미디어 콘텐츠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구수정·김영신·박윤복, 2000, 99년 한국의 10대 환경 뉴스'의 환경쟁점 수업에의 활용 가능성 고찰, 환경교육, 13(1), 24-37
- 이두곤, 2006, 탐구 중심 환경교육의 개념과 의미, 환경교육, 19(1), 80-89
- 이해선, 2024, 환경 커뮤니케이션과 자연과의 상징적 접촉 : 자연과의 유대감, 가상 인물루언서와의 상호작용, 어울림의 필요(the need to belong)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Pezzullo, P. & Cox, R., 『Environmental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sphere (5th edition)』, SAGE Publications, 2018.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1~’25)”,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0&seq=7634, (2024년 11월 4일)